

식품업계 도미노 인상에 장바구니 물가 요동친다



“봄 컬러 다모였네”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평후) 2층 'bag bag' 매장에서는 대형색 볼 색상 가방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복식을 유혹하고 있다. 6만원대부터 45만원대까지 다양하고, 화려하면서도 컬러풀한 색상에 엔조티한 가족이 인기가 높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제과·음료·빙과·라면업체 너도나도 인상 예고

“과자와 면류까지 일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아이들 간식거리도 줄어 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일부 식품업체들이 설탕, 밀가루 같은 소재식품에 이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다른 업체들의 도미노식 인상이 계속 될 전망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과업체가 지난해 12월과 지난해 말 이어 설탕값을 9~10% 올린 데 이어 동아원이 이날부터 밀가루 가격을 8.6% 인상했고 다른 제분업체들도 조만간 값을 올릴 계획이다.

박용수 이마트 광주점 총괄팀장은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과자와 면류의 가격이 최소 100원씩 오르게 될 것이다”며 “소금도 일본 지진으로 인해 수출량이 늘고 사전 매입 등으로 인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일본 지진으로 인해 고등어 생채, 갈치 등은 수입이 안 돼 당분간 마트 판매가 어렵겠지만 구제역 파동 종결로 육류 판매는 이달 말께 국내산 돈육 등이 공급돼 안정을 찾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는 이날 1일부터 순차적

으로 과자 24개 품목의 유통업체 공급가격을 평균 8% 올리고 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홈런볼(4봉)이 3840원에서 4480원으로 16.6%, 오에스(336g)가 2880원에서 3360원으로 16.6%, 후렌치파이 딸기(307g)가 3840원에서 4390원으로 14.3% 오르 등 인기 제품의 인상폭이 크다.

롯데칠성음료도 소매업체에 들어가는 캡시콜라, 사이다 등 납품가를 5~10% 올렸으며 유한킴벌리도 일부 유통업체에 립본 아이스티 10여 개 품목에 대해 평균 10%가량 가격 인상을 요청해 협상을 거쳐 이주 안에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수입맥주 밀러도 10여 개 품목에 대해 평균 5%가량 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통업체와 협의 중이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장보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밖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버거킹은 지난달부터 콜라 값을 1500원에서 100원 올리고 콜라가 포함된 일부 세트메뉴 값도 100원씩 인상했으며 한국맥도날드는 1일부터 런치세트 메뉴를 최대 300원, 던킨도너츠는 베이글 일부제품을 100원씩 올렸다.

특히 가격 인상은 1~2개 업체에 그치지 않는 ‘전방위적 인상’이 될 것

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른 제과·제빵·음료·빙과·라면 업체들도 빠르면 1~2주, 늦어도 이달 안에 제품 가격을 잇달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재식품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 익이 폭 떨어지는 등 원가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식품업체들의 ‘불멘 소리’가 높아지면서 설 명절을 전후로 정부가 앞장서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

지난해부터 곡물, 채소, 포장재 등 각종 원자재 값이 오를 때도 식품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만 말할 뿐 정부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 인상에 나서지는 못했으나 이번에는 “조만간 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다.

일부 오픈마켓(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중개로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판매자들이 식품 제조업체들의 납품가 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11번가는 거래하는 셀러(판매자)들이 이달 중에 우유, 라면, 커피 등 3개 품목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또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이 오픈마켓에서 지난 3월 라면, 커피, 생수 등 매출이 2월보다 각각 3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동요도 보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기름값 100원 인하... 물가 0.2% 하락 효과

물가 급등세 주춤할 듯

SK에너지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7일부터 3개월 동안 8 당 100원씩 내리기로 하면서 소비자물가의 급등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장치는 휘발유가 3.12%, 경유가 1.09%로 단 2개 품목의 가격이 5%만 내려도 전체 지수는 0.21%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으로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월과 같은 120.4를 기록한다면 4월 물가

상승률은 4.15%에 이르지만, 휘발유와 경유가 5%씩 내린다면 3%대에 들어설 수 있다.

다만 통계청은 석유제품의 가격조사를 5일과 14일, 23일이 포함된 주중 1일을 택해 월 3차례 시행하는데 SK에너지는 7일부터 가격을 내리기로 하면서 4월에는 2차례만 인하된 가격이 반영된다.

또 지금까지는 SK에너지만 가격 인하를 확정했기 때문에 SK에너지의 점유율(주유소 풀 기준)인 33% 정도에서만 인하된 가격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4월 물가 조사에서 정유 4사가 4월 한 달 동안 휘발

유와 경유 가격을 8 당 100원 내리는 효과의 9분의 2인 0.05% 정도만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GS칼텍스가 4일 “휘발유와 경유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5월과 6월에는 물가가 0.2% 이상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SK에너지는 신용카드 청구 때 차감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나 통계청은 이를 인하된 가격으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구제역이 무서워”

국민 2명 가운데 1명꼴 돼지·쇠고기 구매 줄어

우리나라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구제역의 영향으로 국산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인 닐슨컴퍼니 코리아가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사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2%가 구제역 파동 이후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구매를 줄였다고 답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구매했다는 응답은 49.5%였고 오히려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 잘못 인식한 소비자일수록 구제역 파동 이후 구매의향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구제역이 사람에게 옮는다’고 잘못 인식한 응답자 가운데 65.2%가 구제역으로 소·돼지고기 구매의향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구제역 육류 조리 시 인체에 무해하다’, ‘구제역 감염 육류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잘못 인정한 소비자 가운데 각각 62.2%, 59.2%가 구매의향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전세비중 줄어도 대출잔액은 급증

전세 비중은 줄었으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세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2월말 현재 전세자금대출 잔액(국민주택자금 대출 제외)은 모두 2조9525억원으로 작년 2월말 1조4575억원보다 103% (1조4950억원)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보증부월세(보증금 + 월세), 월세 가운데 전세 비중은 감소했으나 전세 자금대출은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전세 비중이 줄었는데도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전세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얘기다.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7.4로 전년 동기보다 10.9%나 급등했다. 지난달 14일 기준 전국의 평균 전세값은 전주 대비 0.6% 오르며 2009년 4월6일 이후 100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일품진로’ 애주가 사랑 듬뿍

진로가 지난 2007년 4월 출시한 ‘일품진로’(一品眞露)가 지난해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출시된 후 애주가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등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진로의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최고급 소주 일품진로는 독특한 맛과 차별화된 품질을 앞세워 고급 주류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고급 소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며 주요 타깃층에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있어 소주

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제품이란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순쌀을 직접 발효시켜 증류하는 한국 전통의 소주 제조법을 이용한 증류식 소주로, 순쌀 100%를 원료로 정성스럽게 빚은 증류원액을 천연의 목통에서 장기간 숙성시킨 고품격 숙성소주다.

일품진로는 기존 소주제품과는 달리 천연의 목통에서 배어나온 맑은 호박색의 소주로, 숙성의 부드러운 맛과 중후한 향이 풍부해 묵념감이 좋고 숙

취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일품진로는 알콜도수를 기존 30도에서 23도로 7도 낮추어 기존제품에서 느껴지는 다소 강한 맛을 줄이고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살렸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상표와 병모양도 변화를 주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한문서체를 국문 캘리그래피로 교체해 현대적 감각을 살렸고, 특히 천마총 금관에서 모티브를 따온 왕관과 병 상단 중앙에 삽입한 봉황 이미지로 일품진로의 가치와 품격을 높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光銀 ‘희망나눔 나무심기’

KJB광주은행은 제66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KJB사랑샘터 희망나눔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송기진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은 5일 담양군 금성면 장애인 복지시설인 ‘혜림복지재단’을 방문해 금목서와 느티나무, 자엽자두, 이팝나무 등 묘목 1000여 그루를 심고 녹색환경 만들기 캠페인도 전개했다. <최재호기자 lion@

제101227-중-20563호

*조감도

환자맞춤형 척추질환치료

순천 서울우리병원

• 서울우리들병원 출신 김정목 병원장 • 풍부한 경험의 의료진



순천시 조례동 1719-5번지 서울우리병원 B/D

대표번호 061) 759-1000